

영어교육전공 대학생의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

A Study on General English Education for English Education Major

김지은, 최용훈
가톨릭관동대학교

Ji-Eun Kim(jieunkim@cku.ac.kr), Young Hun Choi(yhchoi@cku.ac.kr)

요약

본 연구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양영어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전공에 특화되거나 전공 교육과는 차별화된 좀 더 효과적인 교양 영어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양 교육의 인식과 요구와 관련된 설문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현 교양영어에 대한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점대로 높지는 않았다. '멀티미디어 시설 등 강의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나 교수진의 전문성, 자질, 교수방법'은 타 항목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았으나 '영어실력 향상의 정도'나 '흥미유발 정도'에 대한 항목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수준별 수업에 대한 요구, 교수자에 대한 요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교육 전공자들을 위한 교양영어 교육을 위하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교육 전공자들을 위한 전공특화 교양영어선택 과목을 개설한다. 둘째, 전공과 연계된 교양영어 회화 과목을 개발한다. 또한 영문학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중심 교양 독해수업을 개발한다.

■ 중심어 : | 영어교과교육 | 영어교육전공 | 만족도 | 요구 | 영문학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more efficient ways of teaching English more related to but distinct from major English, based on the needs and awareness of the students of English Education Department. For this, interviews and surveys have been carried out targeting some English Education maj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students is relatively low, marking around the score '3'. While the satisfaction level about classroom environment including the multi-media equipment, and professors' teaching ability, quality and methods is higher compared with other factors, the improvement of English skills and interest-causing levels are lower on average. Besides, this study also includes the surveys on the needs of students for various teaching programs, differentiated classes and qualified instructor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makes three suggestions as follows:

- (1) the opening of some specific English classes for English-education majors
- (2) the development of English-conversation classes related to English-education majors
- (3)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centered English reading based on English literature

■ keyword : | English Subject Education | English Major | Satisfaction Level | Needs | English Literature |

I. 서론

국내 대학들은 교육부 평가나 사업들의 지표를 포함한 여러 외적 내적 동기들에 의해 다양한 과목들을 개발해 왔고, 교육과정의 개편, 수준별 수업, 신교수법의 시도 등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왔다[1-5]. 보통 대학의 교육과정은 전공 교육과정과 교양 교육과정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교육과정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두 교육과정이 상호 관계를 통해 대학이 목표하고 있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달성하거나 대학의 인재상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변순용, 김민수는 교양교육 과정과 전공 교육 과정이 상호 연관성이 없는 별개로 오해되거나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5]. 이 연구는 특히 교육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 교육과정과 교양 교육과정이 융합하고 서로 조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교양 교육 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야 우수한 교사 양성이라는 교사양성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5].

이처럼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공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양 교육 또한 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본 연구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학생들의 교양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에 부합하는 교육이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6]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구조사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전공을 고려한, 특히 교양과목과 겹치는 전공을 고려한 요구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교양영어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교양 영어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대학 교양영어의 경우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등 교양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공영어 교육과 차별화 되는 교양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대학 교양영어'란 대학 영어교육에서 교양교육을 의미하지만 최근 대학에서의 교양영어는 보통 교양교육과 실

용영어교육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예전의 강독 중심에서 실제 영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영어교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영어 교육의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90년대의 교양영어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는 목표나 계획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 수요자인 학습자의 의견의 반영 보다는 대학의 정책 결정이나 교양영어 운영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교양과목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교양영어 프로그램도 많이 연구되고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예를 들면 수준별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나[3] 교수 방법론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1990년대 교양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요자 기반 교양 교육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조사 중심의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8-10]. 이 외에도 실태 조사를 통한 교양영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1][11] 이들의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교양영어 과목의 운영으로 알려진 대학들의 주요 특징으로는 멀티미디어 시설 등의 활용,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지원 등과 더불어 수준별 수업이 있었다. 이 중 수준별 수업의 경우에는 초급, 중급, 고급 혹은 1, 2, 3, 4레벨 등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수준별 수업을 하지는 않으나 학과별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 대학도 있었다. 수준별 반편성의 기준으로는 수능점수나 토익점수로 반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수준별 수업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2]. [12]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가 수준별 교양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성취도에 미치는 기대는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수준별 수업을 위한 반편성의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준별 영어 수업 외 최근 영어교육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즉 학습자의 전공을 고려하여 영어를 교육하는 것이다[13].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 교양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EGP(English for General Purposes) 중심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하여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교양영어도 필요할 것이다[14]. 본 연구의 대상인 C 대학의 경우에도 수준별 영어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교양에서의 ESP 교육은 아직 시도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과 수준을 고려하고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교양 영어 교육을 제안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4년제 C 대학의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어 교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4]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교양영어에 대한 만족도,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수준별 영어 수업에 대한 요구, 교수자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하였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정보 및 수강 만족도는 [표 1]과 같다. 1학년은 아직 교양수업을 한 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들이 없어서 제외되었으며, 교양수업을 수강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학년과 3학년이 많았다. [표 1]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 학생들의 현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었으며 수강 과목은 대학 ***1, 2, 3이었다. 설문 이외에도 현 교양 영어수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에 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양식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의 분석은 spss 21 을 활용하였으며 성별이나 학년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교양영어에 대한 만족도

교양영어에 대한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면 [표 2],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점대로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설이나 강의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이 3.62로 가장 높았고 '교수진의 전문성, 자

표 1. 참여자 정보

학년				
1	2	3	4	
0 (0.0%)	19 (48.7%)	19 (48.7%)	1 (2.6%)	
성별				
남		여		
22(56.4%)		17(43.6%)		
기 수강한 교양영어 과목				
대학 영어 1	대학 영어 2		대학 영어 3	
수강만족도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0 (0.0%)	2 (5.1%)	21 (53.8%)	15 (38.4%)	1 (2.6%)

표 2. 교양영어에 대한 만족도(평균,표준편차)

n=36	mean	std.
강좌 당 학습자 수	3.51	.721
교수진의 전문성, 자질, 교수방법	3.56	.641
학습자들에 대한 평가방식	3.46	.822
멀티미디어 시설이나 강의실의 환경	3.62	.782
과목의 내용	3.44	.754
영어 실력 향상 정도	3.10	.968
전공과의 연계 정도	3.46	.822
흥미유발	3.26	.880

질, 교수방법'이 3.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항목들의 만족도가 타 항목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이유는 C 대학에서 최근 교양수업의 강의실을 최신 교수법 적용에 적합하도록 바꾸고 교수방법도 플립드러닝 등 최신 교수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영어실력 향상의 정도'에 대한 항목의 평균은 3.10으로 가장 낮았는데, 추후 인터뷰에서는 영문법 중심 수업으로 영어 실력의 향상을 느끼기 힘들었다는 의견과 수준이 영어를 향상시키기에는 비교적 낮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교수자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흥미유발' 항목의 만족도 평균도 낮은 편이었는데, 학습자들의 전공을 고려한 수업이었다면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교양영어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교양영어에 대한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요구를 보면,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회화' 부분의 강화를 요구 하였

다[표 3].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전공 수업만으로는 영어 회화를 충분히 배울 수 없어 교양에서 이를 보충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임용에서 영어로 수업 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양에서 회화를 연습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독해와 영미문학 등 읽기 기능과 관련된 과목을 요구하는 학생들도 20%가 넘었는데 인터뷰에서 문법 중심의 영어교양 수업보다는 향후 임용에 도움이 되는 독해나 영미문학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수업이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활용한 영어독해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능숙 시험도 독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영어 교육학자들이나 교사들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독해중심 수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많은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독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단, 지금까지와는 달리 문제풀이 중심이 아닌 실제 영어 자료를 읽거나 문학작품 등을 읽는 자료의 내용과 정보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의사소통중심 독해 수업이 요구된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독해와는 차별화된 대학생의 인식 수준에 적합한 영어 독해 수업이 필요할 것이다.

교양영어 관련 교과목의 확대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와 '필요하다'가 각각 38.5%로 가장 많았다. 인터뷰에서 교양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본인들의 영어실력이 영어교육과 수업을 수강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교양에서 영어실력을 향상해서 전공수업을 수강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보통' 또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교양과목 대신 전공을 확대해서 임용을 준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과목을 수강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영어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교양 영어수업은 학생들의 기초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과목이나 영어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즉 영어교육학과에 특화된 독해중심의 교양영어 과목을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3.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명(%))

교양영어 프로그램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영역(n=39)						
청취	회화	독해	작문	문법	영미문학	기타
3 (7.7%)	22 (56.4%)	4 (10.3%)	3 (7.7%)	1 (2.6%)	4 (10.3%)	2 (5.1%)

교양영어 교과목 확대 개설의 필요성(n=39)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2.6%)	4 (10.3%)	15 (38.5%)	15 (38.5%)	4 (10.3%)

3. 수준별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요구

[표 4]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교양영어에서 수준별 반편성 또는 전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준별 반편성이 필요한 이유로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재 선택과 눈높이 학습'이 가장 많았다.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시중의 ESL 교재나 문법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수준별 반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과반수가 '수준별 반편성으로 열등감 혹은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답하였다.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일부러 낮은 수준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수준별 수업보다는 학과의 성격에 적합한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준별 반편성의 기준으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체 개발하여 실시하는 영어시험의 결과'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에서 본교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수업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시험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반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요구(명(%))

교양영어에서 수준별 반편성의 필요성(n=39)	예	아니오
	26(66.7%)	13(33.3%)

교양영어에서 수준별 반편성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이유(n=25)	
동질성 확보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쉽다	3 (12.0%)
동질 집단 내 경쟁심을 강화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4 (16.0%)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눈높이 학습 효과도 기대된다	16 (64.0%)
학습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2 (8.0%)

수준별 반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이유(n=14)	
위화감이나, 열등감 혹은 우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8 (57.1%)
같은 수준의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만으로는 학습 효과가 불충분할 수 있다	3 (21.4%)
학습자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21.4%)

수준별 반편성이 필요하다면 '반편성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n=30)	
수능시험에서의 영어성적	2(6.7%)
대학에서 자체 개발하여 실시하는 영어시험의 결과	15(50.0%)
TOEIC, TOEFL 등 표준화된 공인 영어시험 성적	9(30.0%)
모의 TOEIC시험 성적	3(10.0%)
기타	1(3.3%)

4. 교양영어에 교수자에 대한 요구

교양영어의 교수자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전공 원어민 교수였으며 전공 한국인 교수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수도권 국내 주요 대학을 보면 교양필수 영어과목은 주로 한국인과 원어민 교수자가 함께 담당하거나 원어민 교수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교양 선택의 경우는 한국인 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설문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전공 원어민 교수가 수업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영어 회화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전공 원어민 교원을 선호했고 독해나 영문학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전공 한국인 교원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교양 교수님들의 수업도 문제가 없고 교수의 자질도 뛰어나지만 교양영어 담당 교수가 여러분이다 보니 교수별 차이가 크다는 것과 학과에 대한 특성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5. 교양영어 교수자에 대한 요구(명(%))

교양영어의 교수자로 가장 선호하는 것(n=37)			
전공 한국인 교수	전공 원어민 교수	교양 한국인 교수	교양 원어민 교수
10(27.0%)	20(54.1%)	4(10.8%)	3(8.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양영어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전공에 특화된 좀 더 효과적인 교양 영어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교양영어에 대한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점대로 보통이라고 할 수 있었다. '멀티미디어 시설 등 강의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나 교수진의 전문성, 자질, 교수방법'은 타 항목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았으나 '영어실력 향상의 정도'나 '흥미유발 정도'에 대한 항목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는데 인터뷰에서는 영문법 중심 수업이 아닌 수업이나 영어교육 전공을 고려한 수업이었다면 영어실력의 향상이나 흥미유발에 좀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만족도 결과 외에도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수준별 수업에 대한 요구, 교수자에 대한 요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교육 전공자들을 위한 교양영어 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1. 영어 교육 전공자들을 위한 전공특화 교양영어선택 과목 개설

설문 결과, 많은 학생들이 교양영어에서 수준별 반편성 또는 전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수준별 반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학생들 중 과반수가 '수준별 반편성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다. 또한 인터뷰에서 학점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업을 수강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영어 실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보다는 학과의 성격에 맞춘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교양영어의 교수자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전공 원어민 교수였으며 전공 한국인 교수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인터뷰 결과, 영어 회화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공 원어민 교원을 선호했고 독해나 영문학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전공 한국인 교원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준별 수업이 어렵다면 영어 교육 전공자들을 위한 전공특화 교양영어 과목을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학생들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교수자가 수업을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교양에서도 요구되는 ESP 영어 교육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공과 연계된 교양영어 회화 과목을 개발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요구를 보면, 전공 수업만으로는 영어 회화를 충분히 배울 수 없어 교양에서 이를 보충하고 싶다는 이유로 더욱 강화해야 할 영역 중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회화'라고 하였다. 특히 임용 2차를 대비하기 위한 회화나 수업 진행 관련 회화를 교양에서 연습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호하는 교수자로는 전공 원어인 교원이었다. 따라서 전공 수업만으로는 영어회화 능력을 신장시키기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양에서 전공관련 영어 회화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3. 영문학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중심 교양 독해수업의 개발

위에서 언급한 영어 회화 이외에도 문법 중심의 영어 교양 수업보다는 향후 임용에 도움이 되는 독해와 영미 문학 등 읽기 기능과 관련된 과목을 요구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중고등학교 영어독해나 예전의 강독중심 독해 수업과는 차별화된 실제 영어 자료를 읽거나 문학작품 등을 읽는 자료의 내용과 정보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의사소통중심 독해 수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영미문학 작품 활용 교양 독해 수업을 제안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역량과 더불어 심미적 역량도 강조하고 있으며 영어 교육에서 영미문화의 이해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영미문학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하면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인문학적 소양이나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 전공과 차별화된 교양교육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15-17].

본 연구는 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범대학 영어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영미, "대학영어의 수준별 교육에 관한 실험 연구," 글로벌영어교육학회, 제15권, 제1호, pp.49-75, 2010.
- [2]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모형개발연구," 외국어교육, 제11권, 제2호, pp.377-406, 2004.
- [3] 정동수, 김해동, "대학의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제56권, 제4호, pp.265-292, 2001.
- [4] 김상수,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5] 변순용, 김민수, "교육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4호, pp.203-236, 2012.
- [6] T. Hutchinson and A. Water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 learning-centered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7] 박준연, "원어민교수에 의한 대학생 의사소통 영어교육 운영결과 분석," 영어교육, 제52권, 제1호, pp.161-183, 1997.
- [8] 박준연, "외국어 학습의 최근의 흐름과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의 시사점," 외국어교육, 제7권, 제1호, pp.1-23, 2000.
- [9] 조정순,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교육, 제57권, 제2호, pp.365-394, 2002.
- [10] 임정완, "대학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현대영어교육, 제7권, 제2호, pp.130-149, 2006.
- [11] 이예식, 임홍미, "교양영어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중등교육연구, 제53권, 제3호, pp.257-276, 2005.
- [12] 박찬규,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제29권, pp.105-131, 2013.
- [13] W. J. Jang, *A study on ESP: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for cabin attendant*,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 [14] T. Dudley-Evans and M. St. John,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15] Mc Kay and Sandra Lee, "Literature as Content for ESL/EFL,"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rrienne Celce-Murcia(Ed.), Boston: Heinle & Heinle, pp.319-332, 2001.
- [16] 이종복,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문학의 효용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157-165, 2018.
- [17] 최정미, 이호선,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 : 문학과 인성을 접목한 융·복합 교양영어 수업 사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536-545, 2016.

저 자 소 개

김 지 은(Ji-Eun Kim)

정회원



- 2004년 5월 : The University of Texas(언어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영어교육, 음성학

최 용 훈(Young Hun Choi)

정회원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영문학